



GIST, '소통체계 강화·청렴도 향상' 간담회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지난 12일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B동 1층 해림홀에서 구성원 간의 소통체계 강화 및 청렴도 향상 제고를 위해 '교수-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이번 간담회에는 청렴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홍석원 교무처장·김희삼 기획처장·박도현 AI대학원 교수가, 청렴실무협의회 위원으로 신소재공학부·기계로봇공학부 학부지원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연구원 등 약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GIST 관계자는 "이번 교수-학생 간담회 개최 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에 대하여 11월 중 개최 예정인 '청렴시민감사관 및 청렴자문단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며 "또 2024년 종합청렴도 제고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2025년 종합청렴도 제고 계획 수립을 위해 12월 중 청렴도개선특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조선대, 재학생 맞춤 고용서비스 성과공유

조선대학교는 지난 11일 학교 서석홀 4층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4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성과공유회'를 진행하며 1년간의 성과를 공유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조선대 취업전략팀에서 주관한 성과공유회는 2부에 걸쳐 진행됐다.

1부는 빌드업프로젝트 드림챌린지와 점프업프로젝트 IAP 실천 공모전 우수사례 시상식, 2부는 프로그램 우수참여자 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업분석 공모전과 홍보콘텐츠 공모전 발표회 및 지역인재 7급 합격자 발표회 등 다양한 공모전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입학부터 졸업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최동환 기자



호남대 AI융합대학-전남공고 디지털 인재 양성 협약

호남대학교 AI융합대학은 전남공업고등학교와 지난 13일 호남대 IT스퀘어에서 지역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고교-대학 연계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호남대 백관 AI융합대학장, 로봇드론공학과 김광택 학과장, 컴퓨터공학과 오명훈 학과장, 미래

모빌리티학과 이정환 학과장, 전남공고 임현우 드론공강정보과 부장, 김종완 취업진로부장, 김류한 진로교육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공고 재학생 대상 진로교육 등 디지털 교육 운영 △드론·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전문인재 양성 △고교학점제 연계 학교 밖 학점인정 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직무연수 프로그램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최동환 기자



송원대, 2024기업분석경진대회 대상

송원대학교는 철도대학 학생들이 지난 13일 호남대 상하관에 열린 '2024 기업분석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고용노동부 주관·호남대학교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송원대 1개 팀, 호남대 8개 팀이 출전했다.

송명기·임현·심지성·김진홍·임영광으로 구성된 송원대 '대한의 수레' 팀은 '대아TI 기업분석'을 주제로 철도신호에 관한 내용을 발표해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 지도를 맡은 김양수 송원대 철도안전시스템학과장은 "학생들의 수상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호남 유일 철도특성화 대학을 기반으로 우수학생 양성 및 철도 공기업 취업까지 연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 서부소방, 119 소방안전 캠페인

광주 서부소방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AI 페퍼스 휴머노이드가 개최된 광주 서구 염주중환경기장에서 119 소방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서부소방은 안전에 대한 광주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중환경기장 내 소방 홍보부스를 운영해 부천 숙박시설 이후 중요도가 높아진 완강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CPR) 등 관람객 맞춤형 소방안전 체험을 진행했다. 또 소방 캐릭터 영웅이와 함께하는 포토존 설치와 배구 경기 전 경기장 대형전광판을 활용해 차량용 소화기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서부소방과 함께 하는 눈싸움 게임' 경품 이벤트를 추진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김희철 서부소방서장은 "작은 화재의 위험성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동강대 건축과, 광주·전남 건축전공 우수작품전 5팀 입상

동강대 건축과는 최근 사단법인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주최로 열린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광주·전남 건축전공학과 학생 우수작품전'에서 2학년 5개 팀 16명이 우수 작품상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사진)

윤재운·김호근·최서원 팀이 리본(ReBorn)이란 작품으로 광주시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조성범 팀의 '보너스 스테이지(Bonus Stage)' △김화선 팀의 '공동체주택프로젝트' △나혜림 팀의 '광주형 융합문화센터' △

고보배 팀의 '행정부지센터' 등 4개 팀이 수상했다.

이들 5개 팀은 지난 9월 '제21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학생우수공모전'에 각각 작품을 출품해 광주시청 1층 시민홀 전시행사에 참여했다.

공모전을 지도한 이상희 교수는 "오는 12월5일 '제48회 동강대 건축디자인전&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열고 외부 공모전에서 인정받은 우수 건축설계 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조선이공대 웰빙헬스케어 동아리 봉사활동

조선이공대학교스포츠재활학부 웰빙헬스케어 봉사동아리는 지난 13일 광주 동구청 통합돌봄과와 협력해 건강 취약 1인가구를 대상으로 뉴스포츠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봉사동아리 학생들은 이날 실직과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취약한 환경에서 홀로 생활하는 광주 대인동, 계림동 일대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한 보행을 돕고 부상을 예방하는 '스포츠 테이핑'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중장년층이 신체 소근육을 강화하고 체중도 예방할 수 있는 콘홀 경기를 진행했다. 콘홀은 450g 정도 되는 네모난 주머니를 8m가량 떨어진 직사각형 판(보드)에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경기로 뉴스포츠(놀이 스포츠) 경기다.

나승희 조선이공대 스포츠재활학부 교수는 "지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에 우리 학과의 역할을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독서경영 우수직장'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확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4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에서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

독서경영 우수직장 인증제도는 201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인증사업으로 독서문화 확산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독서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2021년 최초 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4회 연속 독서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오병삼 사장은 "독서환경 조성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통해 조직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독서를 통한 소통경영에 앞장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화순전남대병원, 항암제 부작용 치료법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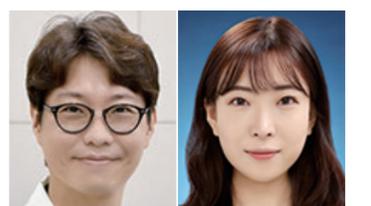
박혁진·이누리 교수팀 연구논문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 손상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법을 발견했다.

14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암 치료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받는 항암·방사선 치료의 심혈관계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학문인 심장중양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최근 순환기내과 박혁진·이누리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논문이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를 자랑하는 세계적 TOP 저널에 잇따라 게재돼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박혁진·이누리 교수 연구팀은 심장중양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심장학회 심장중양학 저널(JACC:Cardiooncology, IF=



박혁진 교수 이누리 교수

12.6)에 '항암제 심장 독성으로부터 회복된 환자에서 심장 약물 치료 중단의 결과'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은 항암제로 인한 심장 독성이 원활하게 치료되고 난 후에도 꾸준히 심장 치료를 유지해야만,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이나 심장 기능의 재악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박혁진 교수는 "암 치료 후에도 환자들의 심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진료와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노병하기자